

충발연 연구실적 해마다 증가, 평균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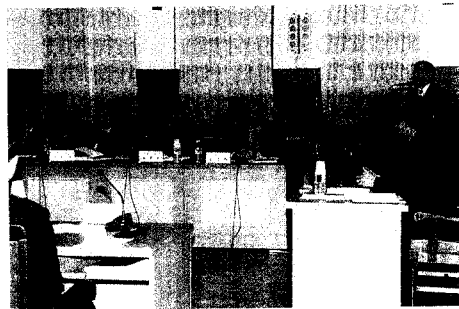
수요자 중심 효과,
기관편중 현상은 해결해야 할 과제

충남발전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실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1년도 연구실적 집계표」에 따르면 이 기간 중 총 연구실적은 2백62건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실적은 지난 2000년도 1백62건보다 62%나 대폭 증가한 것이다. 과제별로 보면 기본과제의 경우 지난해 13건, 현안과제 1백68건, 수탁과제 66건, 연구조성사업 9건, 디자인 홀닥터사업 6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같은 실적은 지난 2000년도 기본과제 7건, 현안과제 1백11건, 수탁과제 39건, 연구조성사업 5건에 비해 모든 과제에서 증가된 것이다.

이처럼 충발연의 연구실적이 늘어난 이유는 수요자 중심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구수행 실적에 비해 수주분야별 기관편중 경향을 보이고 있고 홀닥터 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김대길원장 권한 대행은 『앞으로 양적 확대의 연구보다는 질적 제고의 연구성과를 이루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전담제를 통한 능동적 과업수행으로 2백만 충남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발연 이사회는 지난 3월27일 2002년도 제 1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2001년도 결산안 등 6개 안건을 심의해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지난해 발생한 11억5천만원의 순이익 중 7억은 기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4억5천5백만원은 일반예산에 편입했다.



본 원 춘계수련대회 개최

충발연은 지난 4월 13일 전직원이 참가한 가운데 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원의 사기 앙양과 근무능률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날 수련대회는 계룡대-숫용추-신원사로 이어지는 산행을 한 후 계룡산 지역에 대한 자연관찰을 실시했다.



정종환 원장 퇴임

원장권한대행에 김대길 사무처장 임명

제3대 충남발전연구원 정종환(鄭鍾煥)원장이 건설교통부 산하 제주국제도시개발센터 이사장으로 초빙되면서 지난4월 9일 퇴임식을 가졌다.

鄭원장은 지난해 10월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 초빙돼 21C 세기 중부권과 서해안시대를 맞아 충남지역 개발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전력해 왔다.

「내포문화의 재조명」·「제2회 서해안포럼」 등을 개최,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에 맞춰 부상된 충남 서북부지역 개발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충남연 이사회는 원장 권한대행으로 김대길 사무처장을 지난 4월22일자로 임명했다. 신임 김대길 원장권한대행은 지난해 3월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원장권한대행을 역임한 바 있는데 연구원의 안정화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김 대 길 원장 권한대행

忠南發展研究院
歡 第3代 鄭鍾煥 院長 退任式 送
2002. 4. 9



논산 황산성 학술 답사

현지 주민 큰 호응, 충남역사문화연구소

충발연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소장 이해준)는 지난 4월 27일 논산시민을 대상으로 황산성 학술 답사를 시행했다

현지주민과 논산시관내 개발위원, 논산시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학술답사에는 당 연구소 강종원 연구위원의 “논산 황산성의 역사적 위치와 중요성”에 대한 학술강의 후 황산성에 대한 답사를 실시했다. 현지 답사에서는 당 연구소 이훈 문화재연구부장의 황산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지역주민들과 논산시 개발위원회 관계자들은 논산시 측의 황산성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조사를 건의하였으며 논산시 측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조만간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키로 약속했다.

